

구역:

이름:

<p>7 월 22 월요일</p>	<p>에스겔 1장-4장 □ (핵심장 3장) □</p>	<p>* <b>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말하라:</b> 에스겔서는 앞서 읽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앞의 두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지만, 두 책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꽤 어렵고 난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하며, 특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기록한 1장은 매우 독특하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이어지는 2장에는 여느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기록이 이어지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상징이나 비유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보여 주시며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p>
<p>문제</p>	<p>“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 )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p>	
<p>7 월 23 화요일</p>	<p>에스겔 5장-8장 □ (핵심장 5장) □</p>	<p>* <b>돌이지지 않는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b>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발과 면도를 하여 터력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모인 터력을 3분의 1씩 나누어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하나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닥칠 운명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5장). 이렇게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그림으로 보이신 하나님은 왜 그런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산당과 함께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 앞에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p>
<p>문제</p>	<p>“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 )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p>	
<p>7 월 24 수요일</p>	<p>에스겔 9장-12장 □ (핵심장 11장) □</p>	<p>* <b>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다:</b>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환상을 통하여 계속 제시됩니다. 이마에 먹으로 표시한 사람 외의 예루살렘 전체를 도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환상이 보이더니(9장) 급기야는 1장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아예 떠나 버리는 환상까지 나타납니다(10장). 에스겔은 당시 고위 관리였던 야아사나와 블라다를 향한 경고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던 블라다가 죽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제외되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p>
<p>문제</p>	<p>“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 )을 주며 그 몸에서 (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 ) 마음을 주어....”</p>	

<p>7 월 25 목요일</p>	<p>에스겔 13 장-16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6 장) <input type="checkbox"/></p>	<p><b>*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b>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며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더라도 그들도 가족은 커녕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리셔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불에 던질 땀감과 같은 처지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음녀로 칭하며,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시며 회복의 여지를 남겨 두십니다.</p>
<p>문제</p>	<p>“내가 네게 내 (                    )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p>	
<p>7 월 26 금요일</p>	<p>에스겔 17 장-20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8 장) <input type="checkbox"/></p>	<p><b>* 헛된 것에 네 손을 벌리지 말라!</b> : 17 장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포도나무 씨를 물가에 심자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독수리에게로 뺏어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자 이 나무는 그 독수리에게 물을 얻고자 뿌리와 가지를 뺏어 나갑니다. 물가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는 이 나무는 곧 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에게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이 나무의 모양새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높은 산에 심은 백향목처럼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으니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그들의 손을 벌리는 것뿐입니다.</p>
<p>문제</p>	<p>“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                    ) 돌이키고 살지니라”</p>	
<p>7 월 27 토요일</p>	<p>에스겔 21 장-24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2 장) <input type="checkbox"/></p>	<p><b>* 행음한 이스라엘은 제 뿔의 심판을 받으리라:</b>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고 지시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면 다가올 재앙 때문이라고 답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풀무불 속에 각종 금속 덩어리를 모아서 녹이듯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스라엘을 녹여 버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을 위하여 세우신 고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약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 부르시고 그들의 죄악을 날날이 고발하십니다. 이 와중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그 장례를 조용히 치르라고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은 그들의 장례를 이렇게 조용히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p>
<p>문제</p>	<p>“내가 너를 못 나라 가운데에 (                    ) 각 나라에 (                    )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